

청소년 음주행동 영향요인의 성별 비교

김 원 경[†]

고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청소년 음주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남녀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0 청소년 건강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청소년 2,827명의 음주행동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청소년 음주행동 관련요인으로 개인·심리적 요인(스트레스, 우울, 불안, 충동성, 자존감, 자기효능감, 신체만족도, 건강지각)과 사회·환경적 요인(부모양육행동, 물질적 지원, 사회적지지, 사회참여, 가족유대, 선생님유대, 친구유대)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청소년의 남녀 성별에 따라 음주행동 예언변인과 그 상대적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 우울, 충동성, 사회적지지, 사회참여, 신체만족도, 자존감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청소년 간 영향 요인 상에 차이를 보였다. 남자청소년은 스트레스, 우울 다음으로 선생님과 유대가 음주행동을 예언하는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청소년은 스트레스, 우울, 충동성 외에 신체만족도가 음주행동 예언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청소년은 가족과의 유대 요인이 음주행동 영향요인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여자청소년에게는 가족유대 요인은 음주행동의 예언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청소년의 음주행동 관련요인으로서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논의하고 남녀 청소년의 음주행동 관련 요인 상의 차이를 보인 결과에 대해 청소년 음주행동에 대한 개인·심리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이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기능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이들 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청소년 음주행동 예방 및 비행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대책 수립을 위한 본 연구 결과의 적용 가능성과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음주행동, 남녀 청소년, 스트레스, 우울, 선생님유대, 신체만족도

[†] 교신저자 : 김원경, 고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110-800)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06
Tel : 02-6361-1934, E-mail : kwkim@cuk.edu

인간 발달 주기 중에서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모든 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도전이 이루어지는 인생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 시기로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적 시기에 해당한다(박선혜, 강주희, 전종설, 오혜정, 2010; Peterson, Kennedy, & Sullivan, 1991). 이처럼 청소년의 건강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청소년 건강의 위험 요인 및 건강 위험 행동에 대한 내용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박남희, 이혜정, 2002; 손민성, 김미선, 윤기찬, 최만규, 2013). 청소년 음주 행동은 이와 같은 청소년 건강 위험 요인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청소년 음주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보다 건강한 청소년기를 영위하도록 하는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청소년의 음주는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음주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중 음주를 경험한 학생은 절반 이상이었으며 현재 음주율은 20.6%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05년도의 청소년 현재 음주율이 27.0%였던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다른 나라 청소년의 음주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미국 중학교 1, 2학년의 음주율은 각각 7.3%와 16.7%인데 비해서 한국의 중학교 1, 2학년의 음주율은 각각 17.1%, 19.5%로 조사되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음주행동 비율이 미국 청소년들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음주행동은 여자보다 남자 청소년에게서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나(김용석, 2000; 김지경, 김근희, 2013), 여자 청소년의 음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박남희, 2005; 박재은, 정슬기, 서진환, 2012)와

여성의 음주는 불임과 연관된다거나(Eggert, Theobald, & Engfeldt, 2004), 임신 중의 음주는 임신부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국립서울병원, 2009)등을 통해 여자 청소년의 음주는 성인기의 음주문제로 이어지는 위험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유 영역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잠재적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어 여자 청소년의 음주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여 청소년의 음주행동이 남녀별로 따로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음주행동을 예언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그러한 영향 요인의 남, 여 청소년별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음주행동은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로 인해 일탈행동의 범주에 해당하는 ‘지위비행’으로서 성인의 음주행동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으며(진혜민, 배성우, 2012; 황성현, 2012),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의 음주를 비행이론적 접근을 통해 원인 규명을 시도한 연구가 상당 수 있다(이재경, 정슬기, 2010; 황성현, 2012; 황성현, 이강훈, 2013). 그러나 이러한 다각적 시각으로 청소년 음주의 영향 요인을 접근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 개인적 수준의 영향력과 환경적 영향력을 총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여(김지경, 김근희, 2013), 청소년 음주 관련 요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개인·심리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청소년 음주행동과 관련된 개인·심리적 요인으로는 우울, 충동성과 같은 부정적 정서성이 대표적인 영향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김

순규, 김숙경, 2009; 전영천, 2010; Kirkcaldy, Siefen, Surall, & Bischofff, 2004). 특히 부정적 정서 중 우울은 음주행동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며(현안나, 2012) 우울의 정서는 음주행동을 유발하고 이어서 자살 충동 및 자살시도와 같은 위험행동으로 이어지거나 흡연행동과 같은 또 다른 비행으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윤명숙, 조혜정, 2011). Chen과 동료들(2008)은 충동성, 공격성,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성은 음주행동을 포함한 청소년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심리적 정서 요인은 신체적, 사회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감각적 행동을 추구하고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성향으로 인해 음주와 흡연뿐 아니라 약물남용과 비행 및 자살과 같은 극단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하였다(Viatro, Brendgen, Adouceur, & Tremblay, 2001). 우울과 더불어 스트레스 역시 음주행동의 영향 요인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해소의 방편으로 음주행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비효율적 감정조절 및 우울의 유발이 음주행동으로 이어지는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박재은 등, 2012; 이지숙, 이봉재, 2009). 그러나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로 인해 음주행동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연구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박남희, 2005) 스트레스와 음주행동 간의 관련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로서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같은 자기통제 측면의 요인이 청소년기 다양한 행동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청소년

기 음주행동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많은 연구를 통해 그 영향력이 강조되었다. 음주 및 흡연과 같은 건강위험행동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되거나(박남희, 이해정, 2002; 현안나, 2012), 자기효능감이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은 절주행위의 이행 정도가 높은 것과 관련 있었다(조성기, 2001; Nash, McQueen, & Bray, 2005). 또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신념이 낮거나 건강에 대한 지각이 부정적일수록 음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음주행동에 대한 개인적 요인으로 청소년 개인이 지각하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도은영, 홍영란, 2012).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와 가정환경, 또래 및 친구, 교사 및 학교 환경, 지역사회 및 제도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지경, 김근희, 2013; 박재은 등, 2012). 부모 및 가정환경은 청소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 환경으로 청소년 음주행동에 대해서도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부모의 음주행동은 청소년자녀에게 음주행동에 대한 기대를 상승시키며 음주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명재신, 송민경, 김청송, 2011). 또한, 부모의 자녀 양육행동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 역시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녀에 대한 통제가 낮은 방식의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가 음주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석, 박명숙, 2000; 김재엽, 이근영, 2010; 류나미, 윤혜미, 2006; 조혜정, 윤명숙, 2010). 부모 양육행동과 함께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 측면을 포함하는 가족 결속력 및 가족 유대감도 청소년의 음주행동과 관련성을 가지며, 청소년 음주행동에 대한 가족유대감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김영미, 2006; Fang & Schinke, 2011).

청소년 음주행동 영향 요인 중에서 청소년기의 또래 및 친구 요인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순규, 김숙경, 2009; 이정환, 2010; 현안나, 2012; 황성현, 2012). 또래의 음주행동, 음주에 대한 태도, 음주 빈도, 음주량 모두가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의 친구관계는 음주행동 예언 변인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정명숙, 이동수, 2008). 이러한 또래 영향력은 여자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밝혀져(김주형 등, 2002; 이정환, 2010) 친구 요인은 성별에 상관없이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래와 더불어 청소년의 학교 환경은 청소년에게 가정만큼 중요한 기능을 하는 환경체계로서, 학교환경체계를 통해 또래, 교사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적 환경을 포함하여 교사와의 애착 및 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같은 교사와의 유대감은 음주행동을 포함한 청소년 비행의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이주리, 2008).

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 외에 청소년기의 확대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대인관계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에 의한 상호작용을 그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단절과 직결되는 사회적 고립 및 사회적지지 기반의 약화는

건강행동에 역기능적이며 사회적지지는 문제 음주를 감소시키는 등 심리적 건강 증진에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남희, 2005). 가족이나 친구, 교사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집단에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지지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적절히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낮추고 심리적 안녕과 적응에 도움을 주어 보다 나은 심리건강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손민성 등, 2013). 따라서 청소년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서 사회적지지는 중요한 영향요인에 포함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이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서도 사회적지지가 더욱 강화되거나 또는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개인의 자아개념이 고양되며 이러한 기능이 음주행동과 같은 비행에 대해 매개적 기능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음주행동에 대한 사회적지지와 사회참여의 긍정적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구승신, 정옥희, 장성화, 201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음주행동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다수의 연구들이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이은희, 유혜옥, 박상미, 2009; 정명숙, 이동수, 2008), 분석대상 청소년의 표집의 한계나 지역적 분포의 한계와 같은 문제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이 약한 임의 추출 표본 자료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진 결과가 대부분이어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김지경, 김근희, 2013). 또한 일반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의 연구 동향은 청소년을 고등학생 또는 중학생만을 포함시켜 연구 결과를 반영함(김미정, 고명숙, 2008; 서경현, 2010)으로써 청소년 전체에 일반화시키

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음주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여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관한 구체적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Zhong & Schwartz, 2010) 청소년 음주연구에서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별을 하나의 변수로만 포함시키거나 여자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거나(정슬기, 2007) 또는 여자 중학생만을 연구대상에 포함하고 있어서 여자 청소년 전체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김수옥, 2008; 서경현, 2010)

청소년 음주 연구의 연구대상에 대한 문제 외에도, 청소년 음주행동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청소년 음주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머물러 있었으나(간경애, 김영혜, 김성천, 2001; 박재은 등, 2012) 점차로 음주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와(김승수, 2006; 박소연, 이홍직, 2013; 안정선, 김희경, 최은숙, 2003) 음주와 흡연, 음주와 비행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영미, 2005; 손병덕, 2013). 그러나 선행연구 검토 결과, 청소년의 음주행동 관련 변인들 간의 연관성에 대한 결과가 일관성이 부족하고(박남희, 2005; 박남희, 이해정, 2002),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도 제한적이 측면이 있다는 지적(손민성 등, 2013)을 토대로 분석대상 청소년의 지역적 한계와 표집의 문제를 극복하고 청소년 음주 관련 요인을 제한적으로 다루는 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확률표집을 통해 기존의 표집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 규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0 한국청소년 건강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 중, 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파악하고자 하였

으며, 음주행동의 관련변인 규명을 위해 음주 영향 요인을 개인 내적·심리적 요인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개인·심리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른 음주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음주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음주행동에 대한 구체적 실증 자료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남녀 청소년의 음주 예방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수립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0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중 하나인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에서 음주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건강실태 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방법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표본 추출을 한 다음 학교방문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집단설문조사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은 남녀 초등학생 4~6학년 2,657명, 남녀 중학생 1~3학년 3,254명, 남녀 고등학생 1~3학년 3,933명으로 총 9,844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음주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 총 2,827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측정변인

독립변인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심리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의 두 개 범주로 분류하여 독립변인을 구성하였다. 개인·심리적 요인으로 성별, 우울, 불안·긴장, 충동성,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건강지각, 신체만족도, 스트레스 요인을 포함하였다. 사회·환경적 요인으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용돈을 포함한 물질적 지원, 가족 유대관계, 사회적지지, 사회참여, 선생님 유대관계, 친구와의 유대관계 요인을 포함하였다. 성별을 제외한 모든 측정 변인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성별은 더미변인 처리를 통해 분석에 포함하였다.

독립변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울감과 불안·긴장, 충동성의 측정은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문항을 질문의 구성과 내용에 따라 위의 세 가지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각 문항의 예로는 '기분이 울적이다.'(우울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다.'(불안·긴장),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충동성)의 질문을 포함한다. 자기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은 건강실태 조사의 정신건강 측정에 사용된 자기존중감 척도(5문항)와 자기효능감 척도(9문항)를 사용하였으며, 건강지각과 신체만족도 문항은 각각 단일 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자신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에 대해 1점~4점까지의 Likert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스트레스 요인은 부모 및 친구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 스트레스, 외모와

신체상에 대한 스트레스, 가정형편과 경제적 사정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12개 문항이 분석에 투입되었다.

단일문항을 사용한 측정변인을 제외한 각 측정 도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계수는 우울감=.85, 불안·긴장=.85, 충동성=.86, 자기존중감=.87, 자기효능감=.88, 스트레스=.83로 각각 나타났다.

사회·환경적 요인의 측정에는 부모양육행동 척도가 포함되었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에 대해 10개의 문항을 묻는 척도로서, 문항의 예로는 '부모님은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고민을 들어주신다'와 같이 주로 부모와의 애착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적합치도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계수는 .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용돈을 포함한 금전적 지원에 관한 4개의 문항이 물질적 지원을 측정하는데 투입되어 분석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부모님은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부모님은 경제적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를 포함하며, 4개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는 .78로 나타났다. 가족유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와 같이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4점 척도 상에 응답하는 5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계수인 Cronbach's alpha 계수는 .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는 문항을 포함하여 사회적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는 총 3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여 분석에 투입되었으며, 3개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신뢰도 계수는 .82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관이나 교회, 절 등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한다’는 문항을 포함하는 사회참여 문항도 사회·환경적 요인의 측정변인으로 분석에 투입되었으며 총 3개 문항이 포함되었고 이에 대한 내적합치도 신뢰도 계수는 .79였다.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학교요인이 포함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선생님과의 유대 및 친구와의 유대를 측정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가와 같은 질문이 선생님 유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사용되었고 총 3문항을 통해 선생님과의 유대를 측정하였으며 이들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신뢰도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들과의 유대관계를 묻는 3개 문항을 통해 친구와의 유대관계를 측정하였으며 이들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신뢰도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청소년의 음주행동으로, 청소년건강실태 조사에 사용된 건강행동의 문항 중 음주행동을 묻는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음주행동은 음주의 빈도와 강도를 묻는 문항으로 모두 Likert 척도 상에 응답하는 연속 변인을 사용하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세 가지 분석단계(빈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상관분석

에서는 모든 음주행동 관련 변인(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인 ‘음주행동’과의 상관관계 및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각 변인들이 95%의 신뢰도 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지, 또한 어떤 연구 변인들이 서로 상관을 보이며, 어떤 변인들이 서로 상관을 보이지 않는지를 살펴보았다. 셋째, 회귀분석을 통하여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예언해주는 독립변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 회귀모형에서는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연구 대상자 전체 남, 여 청소년의 음주행동 관련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음주행동 예언 변인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회귀모형에서는 성별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남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음주행동 관련요인 파악을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회귀모형을 통해 여자 청소년의 음주행동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가지 회귀분석을 통해 각 독립변인들이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얼마나 잘 설명해주고 있는지, 또한 남녀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예언해주는 변인들이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에 따른 특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표 1에 분포별 특성을 제시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자 청소년 1,579명, 여자 청소년 1,248명이 자료 분석에 포함되어, 남자청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사례수	%
전체		2,827	100
성별	남자	1,579	55.9
	여자	1,248	44.1
재학 중인 학교 교급	초등학교	259	9.1
	중학교	641	22.7
	고등학교	1,927	68.2
거주지	서울시	401	14.2
	광역시	952	33.7
	시군	1,474	52.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2,293	81.1
	한부모가정	390	13.8
	조손가정	50	1.8
	기타	73	2.6
	무응답	21	0.7

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음주행동의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재학 중인 학교 교급별 분포는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재학생 259명, 중학생 641명, 고등학생 1,927명이 포함되어 교급이 높아질수록 음주 경험이 많아짐을 반영하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서울 401명, 광역시 952명, 시군 거주 1,474명이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자의 가족구성별 특성은 양부모가정 청소년이 2,2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부모 가정 청소년 390명, 조손가정 청소년 50명, 기타 형태의 가정 청소년 73명의 분포를 보였다.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

음주행동과 개인·심리적 요인(우울, 불안·

긴장, 충동성, 신체만족도, 건강지각, 스트레스,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사회·환경적 요인(부모양육행동, 물질적 도움, 가족유대감, 사회적지지, 사회참여, 선생님유대, 친구유대) 간 연관성 탐색을 위한 기초 분석으로 Pearson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음주행동은 $p < .01$ 의 유의도 수준에서 부정적 정서 요인(우울, 불안·긴장, 충동성)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음주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도 음주행동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서($r = .21, p < .01$),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음주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체만족도 및 자신의 건강에 대한 지각,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은 음주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거나($r = -.09, p < .01$) 자신의 건강에 대해 스스로 건강하지 못한 편이라고 느낄수록($r = .30, p < .01$), 그리고 자존감($r = -.03, p < .01$) 및 자기효능감($r = -.08, p < .01$)이 낮을수록 음주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주행동과 사회·환경적 요인의 상관을 살펴보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통제기 심할수록($r = -.13, p < .01$), 물질적 도움이 빈약할수록($r = -.07, p < .01$), 가족($r = -.11, p < .01$) 및 친구($r = -.05, p < .01$), 선생님($r = -.12, p < .01$)과의 유대감이 약할수록 음주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r = -.04, p < .01$), 그리고 사회참여를 많이 하지 않을수록($r = -.08, p < .01$) 음주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음주행동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어, 남학생일수록 음주행동을 더 많이 하고($r = .08, p < .01$), 여학생일수록 우울

표 2. 음주행동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1.00																
2.	.08**	1.00															
3.	.19**	-.19**	1.00														
4.	.17**	-.13**	.71**	1.00													
5.	.19**	-.04**	.54**	.61**	1.00												
6.	-.09**	.19**	-.27**	-.21**	-.15**	1.00											
7.	.21**	-.20**	.57**	.51**	.43**	-.35**	1.00										
8.	-.10**	.03**	-.27**	-.26**	-.19**	.25**	-.33**	1.00									
9.	-.03**	.02*	-.25**	-.23**	-.21**	.19**	-.21**	.28**	1.00								
10.	-.08**	.08**	-.32**	-.27**	-.22**	.26**	-.32**	.32**	.62**	1.00							
11.	-.13**	.02*	-.31**	-.25**	-.24**	.19**	-.38**	.29**	.36**	.46**	1.00						
12.	-.07**	-.04**	-.15**	-.13**	-.16**	.08**	-.23**	.21**	.30**	.32**	.59**	1.00					
13.	-.11**	.01	-.26**	-.22**	-.24**	.16**	-.34**	.29**	.36**	.41**	.71**	.49**	1.00				
14.	-.04**	.06**	-.28**	-.20**	-.15**	.19**	-.27**	.26**	.29**	.38**	.40**	.25**	.39**	1.00			
15.	-.08**	.02*	-.16**	-.09**	-.08**	.14**	-.15**	.14**	.18**	.30**	.27**	.12**	.27**	.46**	1.00		
16.	-.12**	.05**	-.23**	-.17**	-.14**	.21**	-.28**	.22**	.28**	.43**	.42**	.24**	.38**	.41**	.37**	1.00	
17.	-.05**	-.03**	-.24**	-.19**	-.17**	.11**	-.20**	.27**	.37**	.36**	.35**	.32**	.37**	.35**	.14**	.36**	1.00

* $p < .05$, ** $p < .01$

1. 음주행동, 2. 성별, 3. 우울감, 4. 불안긴장, 5. 충동성, 6. 신체만족, 7. 스트레스, 8. 건강지각, 9. 자존감, 10. 자기효능감, 11. 부모양육행동, 12. 물질적지원, 13. 가족유대, 14. 사회지지, 15. 사회참여, 16. 교사유대, 17. 친구유대

($r = -.19, p < .01$), 불안($r = -.13, p < .01$), 충동성($r = -.04, p < .01$)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나타내며, 스트레스도 더 많이 느끼는 것($r = -.20, p < .01$)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일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9, p < .01$), 가족유대감과 성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r = .01, ns$).

음주행동 관련요인 분석

남녀 청소년 전체의 음주행동 관련 요인 회귀분석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대한 관련 요인들의

예언 정도 및 구체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은 성별, 개인·심리적 요인(우울, 불안·긴장, 충동성, 신체만족도, 건강지각, 스트레스, 자존감, 자기효능감) 및 사회·환경적 요인(부모양육행동, 가족유대감, 경제적 지원, 사회적지지, 사회참여, 선생님유대, 친구유대)이었으며, 종속변인으로 음주행동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표 3에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음주행동 관련변인 전체는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약 9% 설명하였다($R^2 = .089, p < .001$).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베타계수를 비교해본 결과, 성별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스

표 3. 청소년 음주행동 관련 변인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Model 1(통합)		
	표준화계수(β)	t	
개인·심리적 요인	성별	.130	11.989***
	스트레스	.116	8.156***
	우울	.095	5.782***
	충동성	.081	6.002***
	불안·긴장	-.004	-.262
	신체만족도	-.034	-3.009**
	자존감	.063	4.522***
	자기효능감	-.001	-.068
	건강지각	-.003	-.206
사회·환경적 요인	부모양육행동	-.044	-2.557**
	가족유대	.037	2.366**
	사회적지지	.074	5.668***
	사회참여	-.043	-3.542***
	선생님유대	-.065	-5.107***
	친구유대	.008	.680
	물질적 지원	-.008	-.583
결정화계수(R^2)		.089	
adj. R^2		.087	
F		43.553***	

* $p < .05$, ** $p < .01$, *** $p < .001$

트레스 > 우울 > 충동성 > 사회적지지 > 선생님과의 유대 > 자존감 > 부모양육행동 > 사회참여 > 가족유대감 > 신체만족도 순으로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우울, 충동성이 심할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존감과 가족유대감이 높을수록 음주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생님과의 유대가 낮을수록,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낮을수록, 부모의 청소년에 대한 양육태도가 온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지각할수록,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음주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심리적 변인 중에서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불안과 긴장, 자아존중감 요인은 청소년의 건강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환경적 요인 중에서 물질적 지원, 가족유대감 요인 또한 음주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않았다.

한편, 성별이 청소년 건강행동을 설명하는데 영향력이 큰 만큼, 성별을 남녀 따로 분리하여 성별에 따른 음주행동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남자 청소년 음주행동 요인 회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남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대한 예언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인 남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약 6.7% 설명하고 있어($R^2 = .067$, $p < .001$)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의 효과를 분리하지 않은 통합 회귀분석 모형보다 설명력이 다소 낮아졌다. 남자 청소년들의 음주행동을 예언하는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베타 계수를 비교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은 스트레스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우울 > 선생님과의 유대 > 충동성 > 사회적지지 > 자존감, 가족유대 > 사회참여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음주행동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함을 많이 느낄수록, 선생님과의 유대관계가 약할수록, 충

표 4. 남자 청소년의 음주행동 관련 변인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Model 2(남자청소년)	
	표준화계수(β)	t
개인· 심리적 요인	스트레스	.114 6.012***
	우울	.084 3.852***
	충동성	.075 3.965***
	불안·긴장	-.011 -.497
	신체만족도	-.016 -1.012
	자존감	.050 2.591**
	자기효능감	.022 1.076
	건강지각	.006 .316
사회· 환경적 요인	부모양육행동	-.046 -1.923
	가족유대	.050 2.273*
	사회적지지	.063 3.366***
	사회참여	-.038 -2.132*
	선생님유대	-.080 -4.423***
	친구유대	-.011 -.609
물질적 지원	-.006 -.313	
결정화계수(R^2)		.067
adj. R^2		.063
F		17.212***

* $p < .05$, ** $p < .01$, *** $p < .001$

동성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존감 높을수록, 가족 간 유대감 높을수록, 사회참여가 낮을수록 음주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요인이 음주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인 것은 통합모형과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인 반면, 남자청소년은 선생님과 유대 요인이 스트레스 다음으로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에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서 학교에서의 선생님과 관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환경적 요인 중에서는 선생님과 유대 외에 가족유대감 및 사회적 지지가 남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통합회귀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불안·긴장, 자기효능감, 신체만족도, 물질적 지원, 친구와의 유대감 요인은 남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또한 남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여자 청소년 음주행동 요인 회귀분석

여자 청소년의 음주행동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독립변인들은 여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약 11.5% 설명하고 있어($R^2 = .115$, $p < .001$),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이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행동 예언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베타계수를 비교한 결과, 여자 청소년 역시 스트레스 요인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우울 > 충동성 > 사회적지지 > 자존감 > 신체만족도 > 사회참여 > 선생님과 유대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은 우울, 충동성,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존감 높고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음주행동을 많이 하며, 신체만족도가 낮고, 사회참여 및 선생님과 유대감 낮을수록 음주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모형과 남자청소년

표 5. 여자 청소년의 음주행동 관련 변인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Model 3(여자청소년)		
	표준화계수(β)	t	
개인· 심리적 요인	스트레스	.112	5.409***
	우울	.107	4.499***
	충동성	.081	6.002***
	불안·긴장	.005	.197
	신체만족도	-.062	-3.818***
	자존감	.084	4.229***
	자기효능감	-.033	-1.536
	건강지각	-.016	-.910
사회· 환경적 요인	부모양육행동	-.039	-1.578
	가족유대	.019	.846
	사회적지지	.086	4.758***
	사회참여	-.049	-2.931**
	선생님유대	-.045	-2.490*
	친구유대	.032	1.894
	물질적 지원	-.010	-.547
결정화계수(R^2)		.115	
adj. R^2		.111	
F		29.874***	

* $p < .05$, ** $p < .01$, *** $p < .001$

년 음주행동 분석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자청소년의 음주행동 예언에서도 스트레스가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울 및 충동성 요인이 여자 청소년의 음주행동 예언에 중요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이 결과는 통합모형에서의 음주행동 예언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이로써 남녀청소년 모두 스트레스 요인이 음주행동을 예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우울 및 충동성과

같은 부정적 정서 요인 역시 음주 행동의 예언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남자청소년의 음주행동 예언 모형 분석에서와 달리 여자청소년의 음주행동에 있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으며, 남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대해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던 선생님과의 유대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설명력이 다소 낮았다. 또한 남자 청소년과 달리, 가족과의 유대감은 음주행동을 예언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개인·심리적 요인 중 불안 및 긴장은 여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남자 청소년의 회귀모형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 물질적 지원, 친구와의 유대감은 여자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행동과 관련된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요인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보다 더 면밀히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남녀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예언하는 다양한 관련변인들이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여 성별에 따른 청소년 음주행동의 이해와 예방책 구축을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울, 불안, 충동성과 같은 개인의 부정적 정서 관련 요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신체만족도, 개인이 지각하는 건강상태를 개인·심리적 요인에 포함하고, 부모 양육행동, 가족유대감, 사회적지지, 사회활

등 참여, 선생님과 친구들 간의 유대 요인을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포함하여 음주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분석을 시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음주행동 관련 요인들은 성별에 따른 효과가 매우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제외하면, 스트레스 요인과 우울감이 음주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가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예언하는 중요한 효과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통해 남, 여 청소년 간의 음주행동 예언 변인을 보다 면밀히 탐색하기 위한 후속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녀 청소년 모두 스트레스와 우울 요인이 음주행동을 예언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이전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그 외의 음주행동을 설명하는 변인 상에 남녀 청소년 간에 차이를 나타냈다. 가족과의 유대감은 남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여자 청소년의 음주행동 영향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만족도는 여자청소년의 음주행동 영향요인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지니지만 남자청소년의 음주행동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행동에 대한 관련 요인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선생님과 유대는 여자보다 남자 청소년에게 더욱 설명력이 큰 관련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음주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청소년기에 당면하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발달을 둘러싼 발달과업적 스트레스와

더불어 개인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은 그러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음주행동을 유발하는 강력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박남희, 2005; 손민성 등, 2013), 건강한 청소년기를 영위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스트레스 측정에는 부모 및 형제자매와의 관계, 교우관계, 이성관계 등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진로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따른 스트레스, 외모나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를 모두 포함하여 스트레스 측정을 하였다.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모두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가 청소년기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를 둘러싼 다양한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발달에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력을 미칠 것임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결과에 근거를 둔 청소년 음주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남자 청소년은 가족과의 유대가, 여자 청소년은 신체만족도가 남, 여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각각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 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상관분석을 통해서도 남학생일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서,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김미현, 2012; Sherry, Jefferds, & Grummer-Strawn, 2007). 즉, 여자 청소년들이 더욱 외모에 민감하여 그로 인해 더욱 스트레스를 느끼고 이러한 점이 여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에서

신체만족도가 중요한 예언 변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비만과 스트레스를 보고한 여학생의 음주율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한 결과(서미경, 최은진, 김동진, 박순우, 2008)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서, 여자청소년의 음주행동 이해에 있어서 신체만족도를 포함한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남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족과의 유대감이 유의미한 요인인 점은 남자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부모와 가족 요인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사회·환경적 요인에서 가족은 일차적 사회환경으로서 의의를 가지며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대한 가족의 영향력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김지경, 김근희, 2013).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나 양육행동 및 부모의 통제와 감독 등의 부모-자녀 관계가 음주행동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과 관련한 음주행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였다(김고은, 조남익, 2012; 김재엽, 이근영, 2010; 조혜정, 윤명숙, 2010).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는 부모의 음주행동이나 음주에 대한 태도가 음주환경으로서의 기능을 하여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명재신 등, 2011; 황성현, 2012)와 같이 가족의 기능 중 상호작용과 사회학습 매개체로서의 가족과 부모의 역할이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의 질적 측면인 가족 유대감이 청소년, 특히 남자청소년의 음주행동에 대한 영향 요인임을 규명하게 된 것은 청소년 음주행동에 대한 사회·환경적 영향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다 확장한 결

과로서 의의를 갖는다.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있어서 선생님과의 유대가 유의미한 예언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청소년기 학교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며(박재은 등, 2012; 이주리, 2008) 학교 변인 중에서도 교사의 기능이 영향력이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선생님과의 유대가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예언하는데 있어서 남자 청소년에게서 상대적인 영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남녀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있어서 사회·환경적 영향력의 강도와 경로가 성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소년 음주행동 관련요인에 관한 기존의 수많은 연구를 통해 가장 강력한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은 또래 및 친구관계인데(이정환, 2010; 황성현, 2010) 본 연구에서는 친구와의 유대는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있어서 음주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행동을 포함한 청소년기 비행의 영향 요인과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청소년기 또래집단이 음주, 흡연, 약물사용과 같은 건강위험행동,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김순규, 김숙경, 2009; 현안나, 2012; 황성현, 이강훈,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후속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음주행동에 관해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행동에 대한 개인·심리적 영향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서 사회활동 참여 및 사회적지지 요인을 포함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모두 남녀 청소년의 음주행동 예언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주장들과 일치하고 있으며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다소 상반된 결과이다. 자기효능감은 청소년 음주행동에 대한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김순규, 김숙경, 2009; Nash, McQueen, & Bray, 2005),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은 음주행동과 비행에 매개효과를 가지며 궁극적으로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위험요인을 중재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다수의 연구(강주희, 박지혜, 전종설, 2011; 최장원, 김희진, 20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아 관련 개념은 청소년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중요한 심리요인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음주행동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나, 그 관련성의 방향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음주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다소 상이하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더욱 잘 대처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이혜순, 2013)를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가 더욱 잘 일어날 수 있으며 따라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음주행동이 증가하는 효과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효과보다 더욱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강조한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할 때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보다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지지 및 사회활동 참여 요인도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활동 참여가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

다(김재엽, 이동은, 정윤경, 2013). 특히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포함(김관희, 김희숙, 2010)하여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음주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 모두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음주행동이 더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사회적지지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거나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지와 같은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는데, 이는 청소년 자신들이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 음주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의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지지는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대한 지지 효과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도 스트레스가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만큼, 스트레스를 포함한 음주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심리적 요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거나 개인·심리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이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는 등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하는 음주행동 영향요인으로서의 사회·환경적 요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에서 실시한 대규모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 포함된 음주행동 관련 변인 외에도 부모의 음주 여부, 음주에 대한 청소년의 지식과 정의, 친구의 음주 여부 및 음주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정

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다양한 음주행동 관련 변인에 대한 개인·심리적, 사회·환경적 요인을 보다 세분하여 영향력의 상대적 설명력을 다각적으로 탐색해 보기 위한 후속 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가족 유대감 외에도 가족 구조(예: 부자가족, 모자가족, 양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에 따라 부자가족에서의 여자 청소년은 친구의 영향력이, 모자가족의 여자 청소년은 부모와의 유대가 음주행동에 대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김영미(2006)의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청소년 음주행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다각적인 요인을 포함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청소년 음주행동에 대한 이해를 재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의의를 지닌다. 전국 규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규명하고자 관련 변인을 개인의 심리적 요인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요인까지 총체적으로 포함하여 조사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 음주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현장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음주는 예방을 목적으로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청소년 음주예방프로그램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남, 여 청소년의 음주행동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음주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이 성별에 따라 다각적으로 달리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데 일조하고,

남녀 청소년의 음주행동 예인 요인이 어떻게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보다 세분화된 구체적인 임상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점에서 이론적, 실천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 효율적 적용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간경애, 김영혜, 김성천 (2001). 초등학생의 음주 및 흡연경험 실태조사. 아동간호학회지, 6(1), 51-59.
- 강주희, 박지혜, 전종설 (2011). 피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음주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1), 121-140.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제7차 (2011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 구승신, 정옥희, 장성화 (201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9), 225-237.
- 국립서울병원 (2009). 태아알코올증후군 예방을 위한 임신부 음주 현황 및 태아 발육상태 평가.
- 김고은, 조남익 (2012). 음주환경이 청소년의 음주정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11), 45-68.
- 김미정, 고명숙 (2008). 음주관련 요인에 따른 남녀 고등학생의 음주태도 비교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9(2), 73-83.
- 김미현 (2012). 한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식습관, 주관적 체형 인지 및 체중 조절 행

- 동 조사 연구 - 제 6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중심으로 -. 동아시아 식생활학회지, 22(6), 720-733.
- 김수옥 (2008). 여자 중학생의 음주경험과 금주 의도 및 관련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7(1), 1-9.
- 김순규, 김숙경 (2009). 청소년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6(9), 105-124.
- 김승수 (2006). 청소년의 음주의도와 음주행위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3, 73-96.
- 김영미 (2005). 음주·흡연 동시 행위 청소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0, 40-68.
- 김영미 (2006).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가족구조와 사회통제적 요인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3(6), 151-178.
- 김용석 (2000). 대처수단으로서의 음주 동기와 음주 행위/ 음주 무제간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9, 5-23.
- 김용석, 박명숙 (2000).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통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 음주와 비행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2, 83-106.
- 김재엽, 이근영 (2010).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2), 53-74.
- 김재엽, 이동은, 정윤경 (2013). 청소년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자원봉사활동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4(3), 99-126.
- 김주형, 김은경, 김효정, 문현숙, 오선민, 박나경, 신혜정, 이경원, 이지선, 최연옥, 최진희, 한유정, 현수인 (2002). 일 도시 여고생의 음주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1(1), 98-108.
- 김지경, 김균희 (2013). 청소년의 음주 여부 및 빈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20(2), 317-346.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어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관희, 김희숙 (2010). 일 도시지역 주민의 스트레스 지각, 정신건강 및 사회적지지.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4(2), 197-210.
- 도은영, 홍영란 (2012). 중학생의 음주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연구, 19(3), 1-23.
- 류나미, 윤혜미 (2006). 또래압력 부모감독과 음주 기대 및 청소년 음주 행동의 변화 추이: 청수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5(6), 891-903.
- 명재신, 송민경, 김청송 (2011). 청소년의 음주 동기에 있어서 가족기능의 영향과 부모의 문제음주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18(8), 291-308.
- 박남희 (2005).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흡연, 음주와 심리사회적 요인과의 관계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2(4), 123-136.
- 박남희, 이해정 (2002). 청소년 건강행위에 대한 국내연구동향.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1), 98-114.
- 박선혜, 강주희, 전종설, 오혜정 (2010). 흡연 청소년과 비흡연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종단적 비교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2(2), 75-94.
- 박소연, 이홍직 (2013). 청소년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구사

- 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 요인, 일탈행동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8(1), 33-44.
- 박재은, 정슬기, 서진환 (2012). 여자청소년의 음주의도에 관한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의 적용. 학교사회복지, 23, 71-99.
- 서경현 (2010). 여자중학생의 음주경험과 음주에 대한 인식. 여성건강, 11(1), 37-53.
- 서미경, 최은진, 김동진, 박순우 (2008).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02.
- 손민성, 김미선, 윤기찬, 최만규 (2013). 청소년의 심리건강 영향요인: 음주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2), 259-369.
- 손병덕 (2013). 청소년 폭력 발달에 있어 음주 행동문제와 범법행동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20(3), 209-226.
- 안정선, 김희경, 최은숙 (2003). 청소년 음주행위 영향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4(1), 55-65.
- 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청소년의 심리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4(1), 63-76.
- 윤명숙, 조혜정 (2011). 청소년음주행위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3(3), 43-66.
- 이은희, 유혜옥, 박상미 (2009).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태도와 음주기대효과가 음주관련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12(4), 91-118.
- 이재경, 정슬기 (2010).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음주 영향요인의 경로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3, 124-153.
- 이정환 (2010). 청소년 음주에 대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1(2), 61-72.
- 이주리 (2008). 중고등학생의 부모, 교사 및 친구 애착과 비행. 한국생활과학회지, 17(4), 563-574.
- 이지숙, 이봉재 (2009).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대처동기가 음주관련문제에 미치는 영향 - 충남의 A시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2), 1-21.
- 이혜순 (2013). 청소년의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연구, 21(2), 121-129.
- 전영천 (2010). 청소년의 음주행동 및 흡연행동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1(1), 89-109.
- 정명숙, 이동수 (2008). 청소년의 음주영향요인과 음주행위 관계에 있어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15(1), 29-58.
- 정슬기 (2007). 여자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7, 176-198.
- 조성기 (2001). 초등학생과 청소년의 음주실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 조혜정, 윤명숙 (2010). 부모감독과 청소년 음주의 상호관계에 관한 종단연구. 청소년학연구, 17(12), 259-285.
- 진혜민, 배성우 (2012).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193-221.
- 최장원, 김희진 (2011).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 73-103.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 V. 2010 한국 청소년 건강 실태조

- 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현안나 (2012). 청소년 음주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Jessor의 문제행동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305-333.
- 황성현 (2010). 부모와 친구요인이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27, 81-103.
- 황성현 (2012). 청소년 흡연·음주행위의 원인에 대한 비행이론적 접근: 일반긴장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32, 19-38.
- 황성현, 이강훈 (2013).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사회학습, 사회유대, 일반긴장이론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24(3), 127-145.
- Chen, H. Y., Storr, C. L., Tan, G. M., Huang, S. L., Hsiao, C. K., & Chen, W. (2008). Early alcohol experiences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A population-based study in Taiwan. *Drug and Alcohol Dependence*, 95, 209-218.
- Eggert, J., Theobald, H., & Engfeldt, P. (2004). Effects of alcohol consumption on female fertility during an 18-year period. *Fertility and Sterility*, 81(2), 379-383.
- Fang, L., & Schinke, S. P. (2011). Alcohol use among Asian American adolescent girls: The impact of immigrant generation status and family relationships. *Journal of Ethnicity in Substance Abuse*, 10(4), 275-294.
- Kirkcaldy, B. D., Siefen, G., Surall, D., & Bischoff, R. J. (2004). Predictors of drug and alcohol abuse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247-265.
- Nash, S. G., McQueen, A., & Bray, J. H. (2005). Pathways to adolescent alcohol use: Family environment, peer influence, and parental expectation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7, 19-28.
- Peterson, A. C., Kennedy, R. E., & Sullivan, P. (1991). Coping with Adolescence. In M. E. Colten & S. Core (Eds.), *Adolescence stress: Causes and consequences* (pp. 93-110). New York: Aldine de Gruyter.
- Sherry, B., Jefferds, M. E., & Grummer-Strawn, L. M. (2007). Accuracy of adolescent self-report of height and weight in assessing overweight status: A literature review. *Archives of Pediatric Adolescent Medicine*, 161, 1154-1161.
- Viatro, F., Brendgen, M., Adouceur, R., & Tremblay, R. (2001). Gambling, delinquency, and drug use during adolescence: Mutual influences and common risk factor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7(3), 171-190.
- Zhong, H., & Schwartz, J. (2010). Exploring gender-specific trends in underage drinking across adolescent age groups and measures of drinking: Is girls' drinking catching up with boy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8), 911-926.

1차원고접수 : 2014. 04. 24.

심사통과접수 : 2014. 09. 03.

최종원고접수 : 2014. 09. 25.

Predictors of drinking behavior in Korean male and female youth

Wonkyung Kim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predictors of drinking behavior among male and female youth in Korea using 2010 Korean Youth Health data. Participants were a total of 2,827 students from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Korea. Data were analyzed with bivariate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to investigate the relevant predictors of drinking behavior with such variables as psychological factors (depression, anxiety, impulsivity, self-esteem, self-efficacy, satisfaction with body image, and stress), and ecological factors (parenting, material support, family relations, social support, social participation, peer relations, and relations to teachers). Results indicated that the predictors of drinking behavior among Korean youth were stress, depression, impulsivity,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Relations to teachers and family relation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of drinking behavior in male youth, while satisfaction with body image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of drinking behavior in female youth. The findings suggest future studies including a list of other influencing factors such as parents' attitude toward drinking, peers' habits of drinking, socio-economic status, and grade on health behavior. Implications for the practice and prevention programs of alcohol use were discussed.

Key words : *drinking behavior, male and female youth, stress, depression, relations to teachers, satisfaction with body image*